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어떤 원인이던 부갑상선 호르몬의 과다분비로 인하여 심한 골음해와 반복적인 요로결석, 소화성 궤양, 궤장염 및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드문 질환으로 수술로써 완치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진단방법의 미비로 심한 신장기능 장애 및 비가역적 골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생화학검사법의 발달로 혈중 칼슘치의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여 지고 면역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부갑상선 호르몬의 측정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경부 초음파와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로 수술전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판정할 수 있게 되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빈도가 현격히 감소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얻고자 최근 10년간 경험하였던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6례(부갑상선 선종 5례, 부갑상선 암 1례)에 대한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8

두경부 악성종양에 대한 UFT 투여후

항종양 효과의 phase II 연구

고려의대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최종욱* · 최 건 · 정광윤

Futraful 과 Uracil 을 배합한 UFT를 최근 2년간 본 교실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두경부 악성종양 환자 68례(후두 19례, 부비동 17례, 구강 14례, 비인강 9례, 구인두 4례, 하인두 4례, 이하선 1례)에 대하여 매일 300~600mg씩 평균 16 ± 4.25 주 투여한 후 Koyama-Saitoh씨의 고행암종에 대한 치료 효과 판정법에 따라서 항악성종양 효과를 관찰한 결과, 4명은 완전관해를 보였고, 19명이 부분관해를 보여 전체적으로 33.8%의 항종양 효과를 보였다.

특히 치료 종결 후 잔류 또는 재발암 환자 32례에 대하여 UFT를 매일 600mg씩 투여한 결과, 7례(21.9%)에서 부분 관해를 보여, UFT는 두경부 악성종양 환자의 치료에 비교적 효과적인 항악성종양제이며, 특히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 경미하여 잔류 또는 재발암 환자에 대하여 고식적 치료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천할 만한 항악성종양제로 생각되었다.